



“세계해사대학(WMU)재학생”, 공단 방문

지난 4월 30일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스웨덴 말뫼 소재) 재학생 방문단이 공단을 내방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토해양부가 2004년부터 매년 현장실습교육(1주)을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단을 내방한 방문단은 Jens-Uwe, Schroeder 교수를 비롯한 재학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공단 홍보와 아울러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선박검사제도 등을 소개하고, 자국에서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재학생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김성규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하여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문단을 환영하고, 한국에서의 현장학습이 각국의 해양산업의 발전과 상호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WMU 재학생들과의 방문기념촬영



▲ 공단 업무 소개를 받고 있는 WMU 방문단

공단 설립 제 1주년 기념식 가져



▲ 공단 설립 제 1주년 기념식

김성규 이사장은 지난 4월 3일 공단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진 자리에서 유공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기념축사를 통해 “공단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다져진 초석을 기반으로 공단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하였다.